

## 마하나임

말씀: 창32:1-23

요절: 창32:2

야곱은 라반과 헤어진 후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을 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날 때 벧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었습니다(창28:12). 하나님은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창 28:13)라고 자신을 계시하셨고, 7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창28:13).
- 네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사방으로 널리 퍼지리라(창28:14).
- 너와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창28:14).
-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창28:15).
-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리라(창28:15).
-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 오리라(창28:15).
-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28:15).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벧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창28:16 20-22). 주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 동안 항상 함께 하셨고, 지키셨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셨고,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약 800 가지가 넘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약속을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거나 어기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1). 야곱은 하란으로 떠날 때 주의 천사들을 만났고,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길에 천사들을 보내 주셨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 존재들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면 그 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일행이 많았지만 야곱 외에 아무도 천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발람과 나귀(민22:23,31). 엘리사와 게하시(왕하6:16-17). 발람은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주의 천사를 보았지만 발람은 주께서 눈을 열어 주시기 전까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민22:31).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주시자 발람

은 주의 천사를 보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시리아의 대군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게하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보라,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왕하6:16-17). 야곱 역시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눈을 열어 주셨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창28:12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2). 야곱이 천사들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말했습니다. \*군대(host)=무리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는데 하나님의 군대란 뜻입니다. 야곱은 한 두 명의 천사를 본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무리(떼, 군대)를 보았습니다.

3-5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내 주께 고하도록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하더라, 하라.”(3-5). 야곱은 세일 땅을 통과해서 고향으로 가고자 했던지 먼저 자기 종을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에돔 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가려면 브엘세바, 세겜, 헤브론 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 종들을 형에게 보내 통행 허가를 얻도록 했고, 그간의 사정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주’라 불렀고 자신을 종으로 자처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로부터 복을 상속 받았고, 모든 형제들의 주(lord)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내 주 에서, 주의 종 야곱,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내 주께”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주’라 부르며 높였고 자신을 종으로 부르며 낮추었습니다. 에서에게 은혜를 입지 않고는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 뿐 아니라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음을 알리고 이들이 모두 에돔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훗날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은 에돔을 통과하려고 은혜를 구하지만 그들은 거부합니다(민20:18-21). 그들은 군대를 데리고 나와 이스라엘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에돔을 우회했습니다(민20:21). 야곱은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자기 종들을 ‘에서’에게 보내어 사정을 알리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사백 명의 남자와 함께 오고 있나이다, 하매”(6). 야곱이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는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한 보고는 에서가 이미 사백 명의 남자와 함께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자들이 가져온 이 소식은 야곱을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본래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사백 명의 남자와 함께 온다’는 보고는 야곱으로서는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추격하던 라반의 손에서 벗어난 야곱이 이제는 에서라는 더 큰 적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 에서에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양심의 거리낌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훔친 것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둘은 쌍둥이 형제이지만 원수 관계요, 적대감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이 보았던 천사들(마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안전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시121:1-2). 위기, 곤란이 닥치면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50:15).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7-8절입니다.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 떼와 소 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 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리라, 하더라.”(7-8).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에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20년만의 형제 상봉인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형제들, 친구들, 부부, 부자 관계까지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오늘날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소식이 두려움이요 고민인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일단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과 양 떼와 소 떼와 낙타들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에서의 공격을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자구책입니다. 야곱은 주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주를 신뢰하기보다 육신을 신뢰합니다. 야곱은 언제나 주님보다 자기가 한발 앞서 갑니다. 기도한 후에 일하기보다 일한 후에 기도합니다. 야곱의 신앙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입니다. 주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은 순종입니다. 자신이 먼저 한 후에 주께 아뢰는 일은 사후(事後) 인가, 재가,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기도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작전을 세웁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 네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9). 9-12절은 야곱의 처절한 기도입니다. 전에 벰엘에서 서원 기도를 한 후 20년 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신조라도 있었던지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며...”라며 부르짖었습니다. 야곱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했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기도할 때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는 필수요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요15:7).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약속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주께 들은 말씀을 주께 알려 드렸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 주신 모든 공훈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10). 야곱은 자신이 받은 공훈과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20년간 하란에서 당한 고난, 억울함, 불행을 토로하는 대신 주께 받은 공훈과 진리를 토로했습니다. 야곱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익함, 무가치함, 불의와 죄악 됨을 인정합니다. 야곱은 라반을 통해 자신의 악함, 거짓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공훈과 진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손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므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11). 간구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알려 드리며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11). 야곱은 지금 지옥의 정죄나 형벌로부터의 구원, 혼의 구원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의 구원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 절박한 위험에서 자신과 가족과 함께 한 종들과 가축들의 생명을 구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기도는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이미 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 질병, 고난, 파산, 죄의 유혹, 마귀의 시험 등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신의 사정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빌4:6). 필요를 구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빌4:19). 야곱은 주님께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11)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선을 베풀고 네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12). 야곱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말씀을 쌓아두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베엘에서 주신 주의 말씀(창28:13-15)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들은 약속의 말씀(창22:17)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창22:17)라고 하셨는데 야곱은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응답 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13-15절입니다. “그가 그 날 밤을 거기서 묵고 자기 손에 들어온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취하였는데 암염소가 이백 마리요, 숫염소가 스무 마리요, 암양이 이백 마리요, 숫양이 스무 마리요, 젖내는 낙타 서른 마리와 그것들의 새끼들이요, 암소가 마흔 마리요, 황소가 열 마리요, 암나귀가 스무 마리요, 나귀 새끼가 열 마리더라.”(13-15). 야곱은 기도를 한 후에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기도이고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야곱과 비슷합니다. 먼저 자신이 계획을 짜고 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는 다시 자신의 계획대로 실행합니다. 야곱은 자기 형에게 보낼 예물을 취했습니다. 야곱은 550마리의 가축을 취해 다섯으로 나누어 보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이 구절을 설교할 때 “야곱은 최선을 다해 계획을 짜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일을 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거나 기도를 하고 나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야곱을 **본받자**”라고 합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을 외치는 이들은 성경을 항상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본문에서 야곱의 불신과 어리석음을 보지 않습니다. 곧 판가름 나겠지만 야곱의 계획, 수고는 사실 아무런 필요도 없는 헛짓이었음을 알게 됩니다(창33:9). 하나님은 야곱의 계획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그것들을 각각 떼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넘겨주며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고 떼와 떼 사이에 거리를 두라, 하고”(16). 야곱은 자기 종들을 지휘하면서 550마리의 가축들을 각각 떼로 나누어 긴 행렬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잠언에서 선물에 대한 구절들을 읽은 것처럼 보입니다.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즉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잠17:8). 에서가 야곱이

보낸 선물을 받아 준다면 야곱의 계획은 훌륭하게 성공할 것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내며 또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잠18:16). 야곱은 자신의 선물이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뇌물’이었고 ‘에서’ 역시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속의 보상은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느니라.”(잠21:14). 야곱은 ‘은밀한 선물’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물을 했습니다. 각각 떼로 나누어서 떼와 떼 사이에 거리를 둬으로써 엄청난 물량 공세를 펼치는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야곱의 잔꾀가 훤히 보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야곱이 직접 가축 떼 앞에 서서 나아가 형을 만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려는 시도를 해야 정상입니다.

17-19절입니다. “그가 또 맨 앞에 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네게 물으며 말하기를, 너는 누구의 사람이나?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너는 이르기를, 그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또 이처럼 들썩고 쟁쟁하고 또 떼들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에서를 만나거든 이런 식으로 그에게 말하고””(17-19). 야곱은 자기 종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18). 야곱은 에서를 ‘주’로 섬기고 스스로 ‘종’임을 알리는 예물임을 말하게 했습니다.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하다 겨우 풀려난 야곱은 이제 ‘에서의 종’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에서의 손으로부터 구출해 달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면서 ‘종’임을 자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는데 야곱의 예물, 야곱의 지혜, 야곱의 처세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계획, 실행을 존중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덧붙여 이르기를, 보소서,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그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20). \*주의 종 야곱-주 에서. 야곱은 자신이 에서의 종임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보낸 예물로 형 에서의 분노, 적대감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100%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인지라 “혹시”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일은 100%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홀로 100% 확실합니다. 주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야곱은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장래 일,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나, 행여나, 일이 잘 풀리면. -야곱.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크리스천. 야곱은 예물로 에서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혹시’ 자신을 죽이지 않고 받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내가 너를 지키리라.(창28:15)”,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창31:3)” 고 하셨던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이같이 예물이 그보다 앞서 갔고 그 밤에 그는 무리 가운데서 묵었더라.”(21). 야곱은 예물을 앞서 보낸 후에 그 밤에 무리 가운데서 묵었습니다.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사재인 성사재천 불가강야(謀事在人 成事在天 不可強也). 야곱은 이 밤이 어느 밤보다 길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한 그는 무슨 일을 해도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22-23절입니다.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압박 여울을 건넜더라. 그

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22-23). 야곱은 그 밤에 온 가족을 데리고 압박 여울을 건넜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다 보내고 자기 소유도 다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일은 다 자신의 손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에서가 선물을 받아 주지 않고 공격을 한다면 맨 뒤에 있던 그는 홀로 도망을 쳐야 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야곱을 가장 위협에 빠뜨린 두 사람이 모두 야곱의 친척이요, 형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이나 이교도가 아니라 유대계 또는 유대인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에서는 한 때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지만 야곱을 받아 줍니다. 훗날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계12:6,14).

하나님의 군대(마하나임)를 본 야곱이 기쁨과 확신에 차 고향으로 행진한 것이 아니라 에서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에 두려움과 고민에 빠져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순례의 길을 가는 대부분 성도들이 겪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말씀: 창32:24-32

요절: 창32:28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오늘날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한 국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흔히 민족을 가리킬 때는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국가를 일컬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솔로몬이 죽은 후 12지파가 남북 왕국으로 갈라지는데 이때 북 왕국을 이스라엘, 남 왕국을 유다라 불렀습니다. 북 왕국은 사마리아를, 남 왕국 유다는 본래부터 있던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고 각 왕국을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은 에브라임(북 왕국)과 유다(남 왕국)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퍼진 이상한 말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개의 지파'라는 란 말입니다. 그런 말은 그냥 지어낸 말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에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에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마19:28)라고 하셨습니다. \*눅22:30. 주의 천사는 이집트로 도망간 요셉에게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마2:20)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마8:10)고 하였고, 제자들에게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마10:6)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 때부터 예수님 당대나 신약 시대에나 항상 존재하며 영원한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 "우리 열두 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행26:7)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잃어버린 열 개의 지파를 뺀 두 개의 지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열두 지파는...."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열두 지파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1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인사하노라."(약1:1). 야고보는 두 개의 지파에게 문안한 것이 아니라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오면 이 땅에 몇 개의 지파가 등장합니까? 열두 지파입니다(계7:4).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이며, 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의 열두 문에도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계21:12). 창세기에서 처음 야곱에게 붙여진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요한계시록 21:12까지 이어지고 새 예루살렘의 성문에 영원토록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론,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과 달리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준 이가 있으니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이삭이란 이름을 직접 지어 주셨고,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24). 아내들과 아이들과 함께 강을 건넌 야곱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고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추격에서 얻은 교훈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라반을 막으시고 자신을 지켜 주셨던 은혜, 보호하심은 지금 이 순간에 수증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게는, 자신이 얼마 전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한 것도 그들을 만난 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한 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창 32:1-2).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보냈던 사자들로부터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창32:6)을 들었을 때 야곱의 혼은 붕괴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철야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위급 시에 혼자서라도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인지 모르지만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종들과 가축들, 아이들과 아내들을 모두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맞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는 평생 모은 돈이나 재산, 지위나 명예, 친구나 가족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밤의 어둠만큼이나 야곱은 이 시간 인생의 어둠, 사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긴 밤을 홀로 보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남자는 천사의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셨습니다. \*wrestle. 대언자 하박국의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란 뜻인데 그는 질문과 답변의 논쟁으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영적 존재들과 씨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wrestle not)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엡6:12). \*씨름하다=싸우다. 야곱의 씨름은 한국의 명절에 벌어지는 그런 살바 싸움이 아니라 처절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도 없는 강가에 홀로 남아 누군가와 맞붙어 싸우고 있습니다. 야곱은 일단 맞붙어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반칙이나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겨야 합니다. 야곱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전술입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25). 근대 올림픽이 생기기 오래 전 이미 야곱은 위대한 레슬러였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날이 새 때까지 씨름한다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는 버텼을 뿐 아니라 판정승을 이끌어 낼 정도였습니다.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25).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힘으로나 지혜로나 그 무엇으로 해도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 이유는 야곱의 자아, 육신 때문입니다. 사람의 자아, 육신은 얼마나 강한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는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롬6:6 갈5:24;2:20).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갈 5:17), 야곱의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롬8:7). 야곱의 자아,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징계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야곱과 같이 육신으로 주님을 대적해 싸웁니다(갈5:17).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기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이기려 합니다. 주님과 싸워 이긴 야곱이 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25). 주님의 징계의 손길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사람의 넓



적다리는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하고 든든한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손을 대자 야곱의 다리는 위골되었습니다. 야곱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야곱은 장애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서가 눈앞에 와도 도망을 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최후의 한 수가 36계(도망)인데 주님께서서는 야곱의 몸을 망가뜨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강한 두 다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한 힘과 좋은 머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길로 야곱은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자기 힘과 지혜가 모두 쓸모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주님을 만나 더욱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복자요, 승리자가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연약한 자로 만들어 놓으십니다(롬8:37). 주님은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위대한 삶을 살기보다 주님의 능력으로 연약함 가운데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고후12:10 빌4:13).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26). 야곱은 다리가 위골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놓아 주지 않았던지 주님은 야곱에게 “나를 가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12:3-4에 따르면 이때 야곱은 눈물로 간구했다고 증언합니다. 야곱은 울면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26)라며 복을 구했습니다. 이미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모두 상속받았습니다(창27:28-29;28:3-4). 또한 주님이 직접 그에게 와서 약속의 말씀과 복을 주셨습니다(창28:13-15;31:3). 그런 그가 지금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은 폐기된 것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도 아닙니다. 위기의 때에 성도들은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지 못한 채 주님께 지금 다시, 지금 새로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늘 새롭게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27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나?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27). 주님은 야곱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대신 “네 이름이 무엇이나?”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3:9)고 물으셨고,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창4:9)고 물으셨습니다. 도망자 하갈을 만나서서는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창16:8)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질문은 언제나 듣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고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나?”고 했을 때 야곱은 자기 집안 이야기나 누구의 아들이며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앞으로 뭘 할 것인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의 직업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가족 관계를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나?”고 물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불법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탈취자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더러운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일컬어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사6:5).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며 자신이 누구인지 시인했습니다(눅5:8).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의 우두머리임을 인정했습니다(딤후1:15). 욥은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속에서 회개하나이다.”(욥42:6)라고 자신을 시인했습니다. 야곱은 자신

의 이름을 묻는 주님께 “야곱이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란 뜻으로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창25:26 호12:3)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의 이름이 그의 인생 자체였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28). 주님은 야곱에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라며 즉석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이후로도 영원한 이름입니다(삼하7:24).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란 이름만큼 크고 유명한 이름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작명의 이유에 대해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28)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자”란 뜻입니다. 야곱은 다리가 위골되었는데 이긴 자였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복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야곱은 더 이상 복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 이미 변화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바뀐 귀면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성경은 이들의 그 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된 후 아브람이란 이름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라가 된 후 사래란 이름은 쓰이지 않고 바울이 된 후 사울이란 이름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후에도 여전히 성경에서 야곱이란 이름이 자주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뀐 이름이 아닌 옛 이름을 사용합니다. 야곱은 육신적인 상태, 옛 사람의 이름입니다. 불신과 육신, 거짓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변화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생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 예전의 상태로 자주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하므로”(29). 야곱은 복을 구하는 대신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야곱은 밤새 씨름을 했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스랍, 천사는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은 천사로 보이는 어떤 사람의 신원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요구했던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매”(출3:13).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 볼 것이 분명한데 그 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주님께 말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I AM THAT I AM”(출3:14)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I AM이 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마노아 역시 주의 천사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마노아가 또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리이다, 하니”(삿13:17). 그 때 주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은밀한 줄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하니라.”(삿13:18).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마노아에게 답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노아는 곧 바로 그가 주의 천사요, 주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야곱

에게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29). 야곱은 드디어 원하던 복을 얻었습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30).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는데 그 뜻은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본 어떤 사람이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주의 천사는 주의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의 천사’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천사는 사람의 모습이요, 남자의 모습입니다. 성화나 영화에 나오는 천사들과 달리 천사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활 때에 모두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씨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30)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본 자들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야곱도 마노아도 알고 있었던 듯이 보입니다. 모세가 주의 얼굴을 뵈기를 원했을 때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출33:20)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고전13:12).

31절입니다. “그가 브누엘을 지날 때에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해 절뚝거리며 걸었더라.”(31). 주님은 떠났고 아침 해가 그의 위로 솟았습니다. 야곱의 영적 상태를 보여 주는 매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평소와 다른 아침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특별한 아침입니다. 늙은 야곱은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날까지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하느니라.”(32). 야곱이 입은 넓적다리의 부상은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의 식생활에 금기 사항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그 후로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율법의 음식 규례가 아니라 관습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 천사는 주님이셨습니다. 야곱은 밤새워 씨름을 하면서 그에게 복을 구했습니다. 야곱은 그가 는 복을 주기 전에는 그를 가게 놓아 주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집요하게 구했고, 주님은 그를 야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루 밤에 185,000명을 능히 죽이는 그런 천사(왕하19:35)와 레슬링을 했다면 아마 몇 초 안에 K.O.패를 당했거나 한 판으로 졌을 것입니다. 야곱 앞에 나타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이 싸움(씨름)은 육신의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야곱의 자아는 하나님께서도 이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성경은 호세아 12:3,4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가 벳엘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호12:3,4) 야곱은 “울며 그분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처절하게 기도하며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몸(넓적다리)에 손을 대심으로써 그의 육신이 무너졌을 때 그가 울었던 것입니다. 육신이 성령을 대적(갈5:17)해서 이기려 할 때 반드시 징계가 임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몸의 질병이나 각종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련, 단련의 과정입니다. 징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을 이겨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은 본문의 왜곡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벧전5:6 약4:7). 어떤 문제로 씨름할 때는 주를 이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야곱의 간구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야곱은 주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시인하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행위, 일보다 먼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상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돈이나 힘이나 다른 어떤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인격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 인생 자체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 때 이름이 야곱이라면 성령을 따라 살 때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존재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압니다(갈4:14 마1:21).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과 씨름하셨던 그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요1:14).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롬8:9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았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현현하신 얼굴이지 주님의 본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요1:18)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딤후4:16). 구약 성경에서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모두 주의 천사나 그분의 현현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보겠습니다.

- 야곱은 밤에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도울 자 없을 때, 빛이 없는 어둠 속에 거할 때, 무리들 속이 아닌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오셨습니다.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모두를 떠나보내고 모두가 나를 떠나고, 버려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히13:5 마28:20
- 우리 속에는 육신이 있고 하나님과 싸우며 굴복하지 않고 이기려 합니다. \*갈5:17 벧전2:11 롬8:13
- 야곱은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후 그는 평생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구원 받은 성도들은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온전해지고 약함 가운데 강해진다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고후12:9-10
- 주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존재에 대해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 \*눅12:15 골3:5 엡5:5 딤후6:9-10,5
- 주님은 우리 자신의 변화가 임할 때까지 연단하십니다. \*벧전1:6-7;2:19-21;3:17;5:10
- 주님은 야곱의 환경을 바꿔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바꿔 주셨습니다. 야곱이 변화를 받았을 때 그의 머리 위로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요15:5 살전2:13 빌2:13 갈2:8 엡3:20 골1:29 히13:21

- 우리는 주님께 복을 구할 때 무기력한 매달림 가운데 부서지는 체험을 한 후에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다리가 위골됨으로 문제가 생겨도 도망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두려움 없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는 절뚝거리며 걸었지만 마음은 충만한 은혜로 가득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도 긴 밤을 통과해 자기 머리 위로 솟아난 햇빛을 받으며 잔피도 속임수도 없이 절뚝거리는 발로 담대히 걸어갑니다. 이것이 변화 받은 성도의 걸음입니다.

## 형의 얼굴을 보니

말씀: 창33:1-20

요절: 창33:10

야곱과 에서의 20년만의 형제 상봉입니다. 헤어질 때는 원수처럼 헤어졌지만 만날 때는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20년 전 동생은 형을 속였고 그의 복을 빼앗았고 그런 동생에 대해 형은 죽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동생은 멀리 하란의 외가로 도망을 갔다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야곱은 형과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형을 두려워해 예물을 준비해 보내고, 주님께 기도했지만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 염려는 점점 증폭되어 홀로 남았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맞으러 오는 에서를 맞이해야 하는 야곱의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만나 씨름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싸움)을 했습니다. 야곱의 육신, 자아는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을 이길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넓적다리에 손을 대심으로 야곱의 육신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징계의 손길은 사람이 신뢰하던 것, 자랑하는 것, 마지막 남은 한가지까지 철저히 부서뜨립니다. 주께서는 징계와 심판의 손길을 통해 아무 자랑거리도 신뢰할 만한 것도 남겨 두지 않으십니다.

자, 야곱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피한 20년 전, 그때 야곱은 예 77세였습니다. 야곱은 7년간의 무보수 노동을 마친 후 84세에 외삼촌 라반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야곱이 91세 때 에 요셉이 의 출생했고 97세가 된 때 귀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은 157세였는데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와 130세까지 살다 이집트로 내려가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 다리가 위골된 시점은 97세입니다. 그는 이후로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면서 걸어야 하는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주님께 복을 빌었지만 주님은 복을 주시기 전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삶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남의 뒷 발꿈치를 잡는 자(야곱 창25:26 호12:3)가 하나님의 통치자(이스라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징계의 손길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보라, 에서가 사백 명과 함께 오므로 그가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말기되”(1). 밤을 새운 야곱이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나 종들은 지난밤에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야곱은 뒤에 숨지 않고 눈을 들어 사백 명과 함께 오는 에서를 보았습니다. 지난밤까지 두려움에 사로 잡혀 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담담히 형이 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습니다. 야곱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까? 마음에 주의 평안이 임했습니까? 성경 본문에 주목하십시오. 그의 이름은 여전히 ‘야곱’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그의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 보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두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2). 야곱은 형이 자신을 공격하거나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을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는데 이는 야곱이 아끼고 사랑하는 순서입니다. 만약 싸움이 벌어지면 라헬과 요셉이라도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한국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모와 아내 중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지겠느냐? 비슷한 질문 중에 아내와 자식 중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지느냐? 자식들이 빠지면 누구부터 건지느냐? 극단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을 A, B, C 세 등급으로 나누어 두 여종과 그의 아이들, 레아와 그의 아이들, 라헬과 그의 아이 요셉으로 나누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은 라헬과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가장 먼저 잃었고 다음은 요셉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항상 문제가 터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일곱 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절하며-bowed)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가니”(3). 야곱은 그들보다 앞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분명 변화된 모습입니다. 지난밤에만 해도 야곱은 맨 뒤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일곱 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3보1배의 종교 의식처럼 절하고 몇 걸음 걷고 또 절하고 몇 걸음 걸었는데 무려 7번이나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는 종이 주인을 맞는 것이나 신하가 왕을 맞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예(禮)를 표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군주가 항복 문서를 바치는 것 이상으로 야곱은 자신을 에서의 종ियो, 에서를 주(主)로 인정하고 섬긴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형의 눈에 은혜를 입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칼 앞에서 한없이 연약했습니다. 다리를 절며 걷는 야곱이 몇 걸음마다 땅에 얼굴을 대고 자기에게 절을 하는 모습은 속임수나 눈가림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어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심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 행동과 가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에서는 야곱이 앞서 나오며 일곱 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를 향해 잡았던 칼을 놓았습니다.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4). 에서는 야곱을 경계하거나 시험하는 대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안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 장면은 잠언 16:7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람의 길들이 {주}

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니라.”(잠16:7). 20년간의 적대 관계가 화해와 화평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형제로 받아 주었습니다. 탕자로 살았던 동생을 받아 주지 못한 형과는 달리 에서는 달려와서 동생을 맞이하며 부둥켜안고 목을 껴안으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형제들의 주(主)로 세움 받은 야곱이 스스로 종을 자처함으로써 인생 최대의 위기를 무사히 모면했습니다.

5-7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이르되, 너와 함께한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thy-에서)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니이다, 하매 그때에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가까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자기 아이들과 함께 가까이 나아와 절하며 그 뒤에 요셉과 라헬이 가까이 나아와 절하니라.”(5-7). 에서는 야곱과의 만남 뒤에 야곱의 처자식들을 보고 “너와 함께한 저 사람들은 누구냐?”(5)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가족들을 소개했고 야곱이 배치한 순서대로 에서에게 나아와 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절을 했다는 것은 한국식으로 웃어른에 대한 공경이 담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에서를 ‘주’로 섬긴다는 일종의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7번이나 절을 하며 나아감으로 이미 가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똑똑하게 보았고 느꼈습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주(thy-에서)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니이다**”(5)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주 하나님이 아니라 형 ‘에서’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의 종’은 에서의 종ियो, 야곱은 자신을 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주 에서의 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덕분에 가족들은 모두 에서에게 나아와 주종의 예를 갖춘 절을 했습니다.

8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것들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니이다, 하매”(8). 에서는 야곱에게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에서에게 550마리의 가축을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보낸 예물에 대한 성격을 물은 것입니다. 에서는 이미 야곱의 종들을 통해 이 모든 때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야곱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들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니이다**.”(8)라며 형께 드리는 선물이요, 예물임을 밝혔습니다. 에서는 영적 명분보다 현실을 중시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야곱이 물량 공세를 펼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에서의 이런 약점을 알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탐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은 세월을 산 사람들이 모두 아는 진리에 속합니다.

9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충분히 있으니 네 소유는 네가 가지라, 하거늘”(9). 에서는 야곱의 선물을 거절했는데 이는 동양적 예의나 관습이라 할 만한 것으로 ‘예의상 거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심에서 나오는 단호한 거절이 아니라 받기 전에 한 두 번은 거절함으로써 자기 체면을 세우고 자신의 탐욕을 가리는 것입니다. 계약 문화인 서양 사람들은 어떤 제안에 Yes, No가 말 그대로 Yes, No입니다. 그러나 셈족의 Yes, No는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방패입니다. 에서는 “**내 동생아, 내게 충분히 있으니 네 소유는 네가 가지라**.”(9)고 했는데 이는 나는 물욕, 탐욕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의 소유가 아니라 너로 충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네가 나에게 줄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동생의 소유를 탐내거나 빼앗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임을 모두에게 확인시키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빈즉 하나님의 얼굴을 빈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10). 야곱은 형의 말에 “아니니이다...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10)라며 다시 권했습니다. 야곱의 예물은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요 은혜를 입었다면 받아 달라는 것입니다. 예물의 거절은 은혜의 거절로 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형에게 선물을 쥐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빈즉 하나님의 얼굴을 빈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10)란 말은 아부의 극치로 보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에서가 어젯밤 자신과 씨름한 브니엘의 하나님 같다고 말했는데 이는 어제 밤에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고, 지금은 에서를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생명을 보존했듯이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 기쁨에 대한 표현입니다. 물론 에서는 이 말을 그냥 칭찬이나 아부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형에게 가져온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그가 받으니라.”(11). 야곱은 형에게 선물을 받으라고 강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란 말은 지난 20년의 세월을 회상하는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사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에게 달려와 부둥켜안고 입 맞추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 외에 달리 어떤 말도 필요치 않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손에서도, 에서의 손에서도 야곱을 지켜 주셨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원하건대 형에게 가져온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라며 강권했고 에서는 야곱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 선물을 받았습니. 에서는 이미 에돔의 족장이요 자신의 말대로 충분히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으로 선물을 취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난이나 부족함으로 인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님을 대외에 천명하면서 선물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이 주의 일을 한 대가를 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선물을 거절함(창14:21-23).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선물을 거절함(왕하5:15-16), 다니엘은 벨사살왕의 선물을 거절함(단5:17),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의 선물을 거절함(행8:20-21).

1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이동하여 가자. 내가 너보다 앞서 가리라, 하매”(12). 에서는 야곱에게 “우리가 이동하여 가자.”라며 동행을 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야곱을 인도하여 아버지 집까지 데려다 줄 의사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사해를 돌아 브엘세바와 헤브론 쪽으로 여행할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야곱 앞에 길잡이가 되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13-14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뱀 양 떼와 소 떼가 있사온즉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하매”(13-14).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야곱은 몇 가지 이유를 내세워 에서의 행렬과의 동행을 거절했는데 첫째, 아이들이 약하다. 둘째, 내게는 새끼 뱀 양 떼와 소 떼가 있어서 하루만 심하게 몰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같이 있으면 정말 그의 종으로 살아야 할 것이 뻔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먼저 가라고 청하면서 자신은 가축들과 아이

들을 데리고 천천히 갈 것이며 세일로 가서 에서에게 가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야곱은 세일로 갈 마음이 없거니와 평생 두 번 다시 에서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의 위기만 벗어나면 영영 떨어져 다시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동행을 거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하는 거짓말이 이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절하기 위해,

15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들 중의 몇 명을 네게 남겨 두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더라.”(15).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자신과 함께 한 사람들 중 몇 명을 야곱에게 남겨 두겠다고 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뒤따라 세일로 오겠다고 하니 그 약속을 지키도록 자기 종들 몇을 남겨 두겠다고 합니다. 에서의 종들이 야곱에게 있다면 야곱은 세일로 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졸지에 에서의 종들을 총독으로 섬겨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15)라며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호위나 안내나 그 어떤 이유로도 에서의 종들은 필요치 않다는 거절입니다.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15)라는 말은 에서의 종들을 자기에게 남겨 두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아 달라는 것입니다.

16-17절입니다. “이처럼 그 날 에서는 자기 길로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이동하여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숙곳이라 하느니라.”(16-17). 에서와 야곱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세일로 돌아가자 곧바로 숙곳으로 향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뒤따라 세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숙곳을 1차 정착지로 삼아 자기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지었습니다. 숙곳은 ‘작은 양우리’라는 뜻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람셋을 출발해 처음 진을 친 곳입니다(출12:37 민33:5-6). 요단강 동쪽 땅이며 압복 강 북쪽 약 3.2km 지점으로 처음에는 헤스본 왕 시혼의 영토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후에 갓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수13:27). 숙곳이란 명칭은 야곱이 이곳에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지음으로 생겼습니다.

18-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기 장막을 친 곳의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백 개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18-20). \*밧단아람(=하란).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당시 살렘으로 불렸고 세겜의 도시였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은 헷 족속 에브론에게 은 사백 세겜을 달아 주며 막벨라 굴과 에브론의 밭을 샀습니다(창23:17). 야곱은 살렘이란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있는 밭을 샀습니다. 이 구절은 스테반의 실수로 불리는 구절로 유명합니다. 스테반은 야곱이 죽은 후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에게서 돈을 주고 산 들무덤에 놓이니라.”(행7:16)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산 것을 ‘아브라함’이 샀다고 했으니 스테반이 성경을 잘못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창23:16 50:13 수24:32. 성령 충만했던 스테반이 야곱과 아브라함을 헛갈렸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역사적,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땅은 헷 족속 가운데 거하던 에브론의 굴과 밭인데 에브론은 \*헷 족속 소할의 아들이었고 그가 가진 땅의 원소유자가 ‘세겜의 아버지 아몰의 아들들’이었습니다(창25:9-10).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이 있던 밭은 \*세겜의 아버지 아몰의 아들들(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산 것이 맞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산 밭에다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는 전에 자신이 주님께 서원한 약속(창28:20)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지만 야곱이 장막을 쳐야 할 곳은 살렘이 아니라 벧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창35:1).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가 단숨에 모든 육신적인 것을 벗어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피를 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의 서원을 자기 마음대로 지켰습니다. 그는 주의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지라 이름이 바뀐 후에도 계속해서 야곱이라 불렸습니다. 그의 영적 성장은 죽을 때까지 진행 중인 점진적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순례의 과정 역시 이와 같습니다.